

# 포덕 162년 천일기념

포덕 162(2021)년 4월 5일



포덕 162년

# 天 日 記 念



포덕 162년 4월 5일

 천도교중앙총부

## 차례

식순	03
기념사	04
축사	10
천덕송_ 제13장 기념송	28
천덕송_ 제15장 천일기념가	30
포덕문	32
수운 최제우 대신사 약력	36
중앙대교당 건립 100주년 기념행사 기획(안)	39

# 기념식 식순

1. 개 식
1. 청수봉전
1. 심 고
1. 주문3회병송
1. 경전봉독\_ 포 덕 문
1. 천덕송 합창\_ 제13장 기념송 / 1절-3절
1. 기념사
1. 축 사
1. 포상 및 장학증서 수여
1. 천덕송 합창\_ 제15장 천일기념가 / 1절-3절
1. 심 고
1. 폐 식

## [식 후]

천일기념 및 대교당 건립 100주년 기념 축하행사

- 천도교중앙대교당 건립 100주년기념 안내
- 축하공연

# 기 념 사



송 범 두  
천도교 교령

오늘은 수운대신사께서 경신년(庚申年)에 무극대도를 창명하신지 162년째 맞이하는 천일기념일입니다. 아울러 오늘이 중앙대교당을 준공하여 첫 기념식을 봉행한지 100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인 모두가 함께 이날을 경축하면서 인간존엄의 후천개벽사회를 지향한 대신사님의 거룩한 창도정신이 온 세상에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온 정성을 다해야겠습니다.

대신사님의 무극대도 창명은 낡고 병든 선천 문명의 종언을 고하고 서세동점으로 무너져가는 동아시아의 질서에 대응하는 가치관의 대변혁을 의미하는 역사적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신사께서는 보국안민 광제창생을 표방하여 선천의 낡은 시대를 마감하고 후천오만년 새 세상의 대두를 예고하면서 소외되고 핍박받았던 민중을 한울님을 모신 군자사람으로 거듭 탄생케 하였습니다.

따라서 대신사님의 무극대도 창명은 한국 사회의 역사적 대전환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편전쟁 이후, 천하의 중심이라고 여겼던 중국의 몰락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포덕문(布德文)에 밝힌 그대로 전승공취(戰勝攻取)하는 제국주의 침략 세력에 대한 경종을 울렸습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동덕 여러분!

지금은 당시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아울러 고도의 물질문명을 향유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계 도처에는 분열과 투쟁의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사람을 차별하는, 이른바 갑질 문화 등의 인간성(人間性) 부재(不在) 현상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신사께서 대망했던 후천

개벽의 평등·평화사회가 아직도 요원함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자연을 존중할 줄 모른 채 정복의 대상으로 여기는 인간의 오만불손이 도를 넘어 해마다 재해(災害)가 가중되면서 인류의 자멸을 자초하고 있는 현상이 현재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금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 사태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코로나 감염현상은 인간중심의 물질문명으로 야기된 기후변화에서 기인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산업혁명 이전의 비교적 온전했던 지구 자연 생태계가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불과 100년 사이에 2할 남짓만 남았을 뿐 크게 훼손되었다합니다. 여기에다 화석연료에 의한 기후 온난화 현상까지 겹치면서 이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이 시작되었고, 그 결과 나타난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유행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와 예기치 못했던 질병들이 창궐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 미국을 급습한 한파로 수백만 가구의 전기와

물 공급이 끊긴 사태를 보도를 통해서 접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온난화 현상으로 인하여 극지방의 빙하와 고산의 만년설이 붕괴되면서 인명이 손실되는 참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는 머지않아 인류가 감당하기 어려운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인간이 자초한 ‘반수기앙(反受其殃)이요 자업자득(自業自得)의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대신사께서는 포덕문에서 “저 옛적부터 봄과 가을이 갈아들고 사시가 성하고 쇠함이 옮기지도 아니하고 바뀌지도 아니하니, 이 또한 한울님 조화의 자취가 천하에 뚜렷한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연의 주인이라고 착각한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자연이 파괴되고 훼손됨으로써 불천불역(不遷不易)하는 대자연의 법칙이 무너지는 현상이 지구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사께서는 각자위심(各自爲心)으로 천리에 순종치 아니하고 천명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인간의 역천(逆天)행위를 질타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은 대자연 앞에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하는 사실을 교훈 삼아 대오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동덕 여러분!

오늘날 지구촌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사태를 계기로 여러 방면에서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생활의 틀이 급진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단 역시 교단중흥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시운시변(時運時變)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역자들이 무사안일에서 벗어나 맡은 바 책임감을 가지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교단이 신뢰를 회복하고 모든 교인들이 동귀일체하여 신명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남을 탓하기에 앞서 내 자신부터 마음을 가다듬어 솔선수범할 때 교단중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혼자만 천도교를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역자는 물론 모든 동덕이 함께 포덕 교화에 나서야 하겠습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천도교를 알리는 책자도 나누어주고 대화도 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포덕에 힘쓰는 정성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대신사께서는 ‘정성이 이루어지는 바를 알지 못하거든 스스로 자기 게으름을 알라’고 교시하셨습니다. 비록 여건이 여의치 않다고 하더라도 지난 날 선열들이 보여주었던 열성과 신

념을 사표로 삼아 교역자 여러분들께서 가일층 분발하시기를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동덕 여러분!

올해는 대교당 건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시다시피  
의암성사께서는 3.1운동을 위하여 중앙대교당 건립을 추진하  
였고, 그 건립 성금을 독립운동 거사 자금으로 제공하였습니다.  
그로인해 대교당 준공이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천일기념일과 중앙대교당건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교  
인 여러분과 함께 거듭 경축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코로나 사태  
를 슬기롭게 극복하시어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한울님  
께 심고합니다.

감사합니다.

포덕 162(2021)년 4월 5일

천도교 교령 송 범 두 심고

# | 축사 |



## 원 행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사)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의장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오늘 천도교가 창도된 지 162년을 맞아 봉행하는 천일기념식을 마  
음을 담아 경축드립니다.

어느덧 산천초목이 피어나는 따뜻한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미증유  
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마음으로도  
나 양천가절의 봄기운을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도교는 수운 최제우 대신사께서 160여년 전에 시천주(侍天主)의  
진리를 대각하시어 보국안민(輔國安民) 광제창생(廣濟蒼生)의 후천개  
벽 시대를 선포하셨습니다.

대신사의 시천주 진리는 해월 최시형 선생의 사인여천(事人如天)에

이어 의암 손병희 선생의 인내천(人乃天) 사상으로 이어져 차별적 신분사회를 혁신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학혁명과 3·1 운동 등을 통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적으로 헌신한 역사적 사실이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인류사회는 고도로 발전한 기술문명에 반하여, 각자위심(各自爲心)으로 인한 인류 부재 현상이 만연해있습니다. 여기에 환경과 기후로 인한 기후변화 또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자연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시대적 병리 현상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종교계가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천도교의 천일기념일을 맞아 수운 최제우 대신사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사회가 천명을 공경하고 천리를 따르는 지혜를 발휘함으로써 공영하는 미래사회를 건설하는 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거듭 천일기념을 축하드립니다.

2021년 4월 5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사)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의장 원 행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 | 축하 |



황 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입니다.

수운(水雲) 최제우(崔濟愚) 대신사께서 동학(천도교)을 창도하신 지 올해로 162년째를 맞이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대지가 꿈틀대는 완연한 봄의 자락에서 ‘포덕 162년 천일기념식’을 봉행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천도교 최대의 기념식을 비대면 행사로 준비해주신 송범두 교령님을 비롯한 모든 천도교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천도교는 그동안 모두가 평등하고,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人乃天)’ 사상을 바탕으로 민중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과 의병활동, 3·1운동을 주도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단초를 마련하는 등 보국안민의 정신으로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해왔습니다.

특히, 현재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천도교의 정신과 가르침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천도교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우리 국민들이 혼연일체로 합심하고 국가적 위기를 다시 한번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대한민국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문화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기념식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천도교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1년 4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 희

# | 축하 |



김희중  
한국 천주교 대주교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 천도교 창도 162주년 천일기념일을 맞아 신암 송범두 교령님과 전국의 천도교인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천도교는 우리 민족의 파란만장한 역사와 늘 함께하며,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는 보국안민의 기치로, 민족이 환난에 빠졌을 때에는 포덕광제의 기치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을 마다치 않고 善導했던 명실공이 민족종교로서 창도 162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금 세상은 안타깝게도 온 지구촌이 일찍이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19의 감염 사태라는 전대미문의 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있어 수운 대신사께서 창명하신 시천주 즉, 모든 생명은 한울님의 영성을 모신 존엄한 존재라는 진리의 가르침이 가슴에 와 닿는 것은 오늘날의 사태가 새롭게 생명의 고귀함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그 존엄한 생명이 서로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지켜질 수 없는 존엄한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다시 한 번 뜻 깊은 162주년 천일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5일

한국 천주교 김 희 중 대주교 심고



# | 축하 |



도 종 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도종환입니다.

수운대신사께서 득도하신 날, 포덕 162년을 기념하는  
천일기념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천도교는 동학농민혁명, 3.1운동 등  
우리 민족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고통받는 사람들과 세상을 구하기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 끝나지 않은 지금,  
우리는 혼란과 위기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  
각자위심(各自爲心)이 앞서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한울님’의 마음으로 ‘개벽’하라는  
수운대신사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되새기게 됩니다.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천도교가 우리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고  
개벽의 새로운 세상을 여는 데 앞장서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포덕 162년 천일기념식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도종환**

## | 축하 |



손진우  
유교 성균관장

만물이 생동하는 봄입니다. 좋은 날에 천도교(天道敎) 포덕(布德) 162년 천일기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급변하는 세계의 조류(潮流) 속에서 현대사회는 미증유(未曾有)의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있지만 물질만능주의와 개인이기주의 속에서 수많은 사회문제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도덕과 윤리, 가치관의 부재 그리고 인성교육의 소홀 속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국가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채울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 종교계가 종교의 본질을 염원하여 상호 소통하고 상생한다면 난관을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돌이켜 보면 수운(水雲) 최제우(崔濟愚) 선생의 정맥(正脈)인 천도교는 파란(波瀾)과 혼란(混亂)으로 점철(點綴)된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민족수호와 국권확립의 중심에 서서 고군분투(孤憤奮鬪) 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도도한 강물처럼 전승되어 우리나라 현대사의 발자취로 낱낱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 기개(氣概)와 그 용기(勇氣)가 밑거름이 되고 원동력이 되어 오늘날 문화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천운(天運)은 생생지도(生生之道)로 순환(循環)을 거듭하고 인도(人道)는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 순천(順天)을 표방(標榜)합니다.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천도교 포덕 162년 천일기념을 계기로 왕운(旺運)이 깃들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앞날에 번영(繁榮)과 중흥(中興)의 빛과 힘을 주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辛丑年) 4월 5일

유교 성균관장 손진우

# | 축하 |



오 도 철  
원불교 교정원장

수운 최제우 대신사의 ‘시천주’의 큰 울림이 퍼진지 162년입니다. 포덕162년 천도교 창도 천일기념일을 온 마음으로 축하드리며, 천도교의 앞날에 범신불 사은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큰 어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올해에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같이 잘 해결되기를 염원합니다.

수운 대신사께서는 1860년 경신 사월 오일 “오심 즉 여심”, 즉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라 하신 한울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득도를 하셨습니다.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께서는 일찍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말씀으로 과학문명을 바르게 선용하라는 도덕적 자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교단 창립 무렵부터, 수운 대신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상이 세상에 드러난 뒤에는 수운 선생과 함께 길이 받들고 기념하게 되리라”. 또

한 원불교 2대 종법사인 정산 송규 종사는“너희가 하나의 진리를 깨치고 보면 차차 수운 선생과 대종사가 두 분이 아닌 것을 알게 될 것이요”라 했습니다.

이런 말씀에 비추어 보면, 원불교와 천도교의 교문은 서로 다르나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세상살이를 한마음 한뜻으로 뜻을 나누며 희망을 가지고 앞날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수운대신사의 ‘시천주’에 근원한 의암성사의 ‘사람이 곧 한울님’이라는 인내천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의 가르침인 ‘곳곳이 부처님’이라는 ‘처처불상’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을 이어 받아 정신개혁, 민족개혁, 사회개혁을 내세웠던 천도교의 왕성한 활동을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물질만능주의와 그로 말미암은 기후환경의 위기를 우리는 함께 극복해낼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세상은 낙원입니다. 이 낙원은 몇 천 년 후에 다가오는 인류의 꿈이 아니라, 우리가 교법 실천으로 만나는 현실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는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이고, 사람마다 다 부처가 되는 세상입니다. ‘오심 즉 여심’한울님을 모시는 마음을 밝히면 그가 곧 한울님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천일기념일을 축하드리며 천도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원기 106년 4월 5일

원불교 교정원장 오 도 철 합장

# | 축하 |



이 범 창

(사)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공경하는 동덕 여러분,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수운 대신사님께서 한울님으로부터 오만년지 무극대도를 받으신지 162년이 되는 천일기념일을 맞이하여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모든 회원들과 함께 온 마음을 다해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은 한울님께서 노이무공하시다가 수운 대신사님을 만나 성공하신 날이요, 대신사님께서 거룩하신 대성인, 모든 인류의 대스승, 후천 천황씨로 새롭게 탄생하신 날입니다. 또, “용담의 물이 흘러 네 바다의 근원이요 구미산에 봄이 오니 온 세상이 꽃이 된 날”입니다.

수운 대신사님께서 창명하신 무극대도, 시천주 신앙은 당시의 조선사회에서는 경천동지할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때의 우부우민들은 이 시천주의 진리가 인류와 세상 만물을 구원할 만고불변의 가르침이요 지상천국 건설의 열쇠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160여 년 전의 사람들뿐만 아니

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세상 사람들도 역시 미몽에 잠겨 후천을 다시 개벽하여 지상천국을 이룩할 만고 없는 오만년지 무극대도인 시천주 신앙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몹시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반인륜적인 살상과 환경파괴 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지상천국적인 만행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천도교인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천도교인들이 앞장서서 시천주, 사인여천, 인내천의 진리를 이 세상에 널리 퍼 구미산에서 핀 한 송이 꽃이 온 세상에 만발할 때 정녕 지상천국은 이룩될 것이며 대신사님의 오만년지 무극대도는 완성의 길에 들어 설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남북이 갈라져서 총칼을 맞대고 있는지 70여 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남북이 하나 되는 이념이나 사상도 이 시천주 신앙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사님께서 그토록 애타하셨던 “보국안민의 계책이 장차 어디서 나올 것인가(輔國安民計將安出)”의 해답도 천도교 안에서 나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천도교회가 제 역할을 다 할 때 이 세상은 소외되는 곳 없이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고 만물이 평안한 지상천국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포덕 162년 천일기념일을 중심으로 축하합니다.

산하대운이 만고 없는 무극대도로 돌아오고 있는 이때에, 천도교가 이 세상에 우뚝 서서 시천주 신앙을 온 세상에 꽃피울 그 날이 하루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축사를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포덕 162년 4월 5일

(사)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이 범 창 심고



## | 축하 |



이 종 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오늘은 천도교 1대 교조(敎祖)이신 수운(水雲) 최제우(崔濟愚) 대신사(大神師)께서 개벽(開闢)의 첫날을 여신 포덕 162년 천일기념일입니다. 수운 최제우 선생은 1860년 무너져가는 조선과 함께,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시고자 새로운 사상인 동학(東學)을 창시하시었습니다.

수백 년 간 유지되어온 신분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인간은 신분이나 빈부, 적서나 남녀 간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하다는 만민평등사상(萬民平等思想)을 주창하신 것입니다.

인본주의에 기반하여 인간평등과 사회개혁을 주장한 동학은 민중들의 절대적 호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조와 질서를 변혁시키고자 하는 민중들의 열기가 농축된 혁명사상인 것입니다.

최제우 선생의 민중평등의식은 이후 최시형 선생을 통해 ‘사람이 하늘이니(人是天) 사람 섬기기를 하늘과 같이하라’는 사인여천(事人如天)으로 발전했으며, 3대교주인 손병희 선생에 이르러서는 ‘사람이 곧 하

늘(人乃天) 사상' 으로 체계화 되었습니다.

이러한 천도교의 평등과 인간존중사상은 동학민중혁명으로 발전되었고, 1919년 3월 대혁명으로 폭발하였습니다.

3.1 대혁명에 의해 우리 민족은 마침내 전제국가인 대한제국에서 벗어나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탄생시키게 된 것이고, 그 중심에 최제우 선생의 혁명사상이 바탕이 된 것입니다.

최제우 선생으로부터 촉발된 인간평등사상은 수천 년 지속된 신분제를 철폐시켰으며, 事人如天과 人乃天 사상을 만들어 냈고, 마침내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냈기에 그 의미가 매우 큰 것이며,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사상과 철학이 바로 “천도교”를 이끄는 바탕인 것이며, 민족의 정신인 것입니다.

오늘 수운 최제우 대신사의 포덕 162년 천일기념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대신사님의 높고 큰 뜻을 받들어, 혼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정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 19로 1년 이상을 모든 국민이 고통 받고 있지만, 이를 슬기롭게 잘 극복해야 할 것이며, 여전히 굳게 닫혀있는 남북관계의 문도 빨리 열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최제우 대신사님이 바라는 대한민국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최제우 대신사님의 포덕 162년 천일기념일을 축하하며, 함께 하신 많은 분들에게 감흥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5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이종걸

# | 축하 |



이 홍 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포덕 162년 천일기념식을 축하드립니다.

1860년대에 조선 사회는 심각한 혼란과 위기에 처했습니다. 농업 중심의 사회가 새로운 화폐 경제로 분화되는 중이었고, 오랜 세도정치와 부정부패, 질병과 천재로 인해서 사회 전반이 급속히 붕괴하는 중이었습니다. 사람이 천대받는 세상. 아니 더 정확히는 착하고 선한 평범한 이들이 천대받던 세상에 동학은, 天地萬物이 한 몸이고, 사람 속에 한울님이 계시니 서로 공경해야 함을 일깨웠습니다.

최제우 대신사의 깨달음으로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리자 비로소 천대받는 사람, 착하고 선한 우리 이웃들이야말로 하늘을 품고 사는 우리 곁의 한울님이심이 밝게 들어났습니다(天日, 人乃天). 하늘이 열리자 민중은 ‘내 작은 힘으로라도 세상을 바꿔보자.’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늘이 열리자 역사는 一人之下의 나라가 아니라 백성이 주인인 나라로 변모할 단초가 마련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대신사의 깨달음은 민중의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의 시작입니다.

미얀마 민중항쟁으로 마음이 아픈 시절입니다. 그들의 항쟁도 역시나 사람이 소중한 세상, 서로서로 공경하는 세상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들의 하늘이 넓게 열릴 수 있도록, 먼저 막힌 하늘을 열어젖힌 우리가 힘을 보태야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생태계 위기로 초래되었다는 연구보고처럼 자연을 이기적으로 착취한 인류의 과오를 회개하고 천지 만물을 내 몸처럼 공경하는 삶으로 전환하는 일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서구세계가 식민지를 개척하며 착취에 몰두할 때 ‘人乃天’의 깨우침으로 세상을 올바르게 바꾸고자 애썼던 천도교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천일기념식이 과거를 기억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다시 만난 이 위기의 시대에 반드시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위한 길을 선택해야만 하는 인류의 숙명을 깨우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포덕 162년을 맞아 송범두 교령님을 비롯하여 모든 천도교우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 홍 정 목사

## 제13장 기념 송

1. 천 - 은 이 망 극 하 여 경 신 사 월 초 오 일 에  
 2. 한 - 울 님 하 신 말 씀 개 - 벽 후 오 만 년 에  
 3. 나 도 성 공 너 도 득 의 너 회 집 안 운 수 로 다

1. 글 로 어 쯔 기 록 하 며 말 로 어 쯔 성 언 할 까  
 2. 네 가 또 한 침 이 로 다 나 도 또 한 개 벽 이 후  
 3. 이 - 말 씀 들 은 후 에 심 - 독 회 자 부 로 다

1. 만 고 없 는 무 극 대 도 여 몽 여 각 득 도 로 다  
 2. 노 이 무 공 하 다 가 서 너 를 만 나 성 공 하 니  
 3. 무 극 대 도 닦 아 내 니 오 만 년 지 운 수 로 다

후렴

기 장 하 다 기 장 하 다 이 내 운 수 기 장 하 다

종 을 시 고 종 을 시 고 이 내 신 명 종 을 시 고

## 제15장 천일기념가

1. 한 울님 의 높 으 신 - 목 소 리 로  
 2. 한 울님 은 두 려 말 라 하 시 며  
 3. 한 울님 이 우 리 스승 나 서  
 4. 한 울님 이 우 리 스승 나 서  
 5. 한 울님 이 우 리 스승 나 서

1. 우 리 스 승 을 크 세 부 르 실 - 때  
 2. 우 리 스 승 을 크 세 부 르 실 - 때  
 3. 처 음 으 로 그 공 이 루 실 - 때  
 4. 내 마 이 으 음 이 곧 내 맘 이 다 하 실 - 때  
 5. 맘 이 으 기 - 배 로 즐 기 실 - 때

1. 구 질 구 질 오 - 는 비 는 개 었 고  
 2. 맑 - 은 밤 올 바 략 은 천 히 불 고  
 3. 큰 - 을 깨 래 - 처 우 는 천 히 불 소  
 4. 잔 - 나 비 개 르 칫 음 는 그 아 - 리 고  
 5. 온 우 주 를 비 치 음 는 아 - 침 - 해

1. 검 은 구 림 은 사 라 졌 구 나  
 2. 용 담 물 결 은 고 요 하 구 나  
 3. 새 벽 의 소 식 은 전 해 주 누 나  
 4. 봉 황 의 소 식 은 전 해 주 누 나  
 5. 동 실 소 동 실 - 오 - 른 나

후렴

거룩하신 스승말씀에

사람이 곤한 올인 - 줄

우리들이 깨달았으니

잊지 못할 이 아 - 침



## 布德文 (포덕문)

蓋自上古以來 春秋迭代四時盛衰 不遷不易 是亦天主造化之迹 昭然于天下也 ①

저 옛적부터 봄과 가을이 갈아들고 사시가 성하고 쇠함이 옮기지도 아니하고 바뀌지도 아니하니 이 또한 한울님 조화의 자취가 천하에 뚜렷한 것이로되,

愚夫愚民 未知雨露之澤 知其無爲而化矣 ②

어리석은 사람들은 비와 이슬의 혜택을 알지 못하고 무위이화로 알더니,

自五帝之後 聖人以生 日月星辰 天地度數 成出文卷而以定天道之常然 一動一靜一盛一敗 付之於天命 是敬天命而順天理者也 故 人成君子 學成道德 道則天道 德則天德 明其道而修其德 故 乃成君子 至於至聖 豈不欽歎哉 ③

오제 후부터 성인이 나시어 일월성신과 천지도수를 글로 적어내어 천도의 뉘뉘함을 정하여 일동일정과 일성일패를 천명에 부쳤으니, 이는 천명을 공경하고 천리를 따르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은 군자가 되고 학은 도덕을 이루었으니, 도는 천도요 덕은 천덕이

라. 그 도를 밝히고 그 덕을 닦음으로 군자가 되어 지극한 성인에  
까지 이르렀으니 어찌 부러워 감탄하지 않으리오.

又此挽近以來 一世之人 各自爲心 不順天理 不顧天命 心常悚然  
莫知所向矣 ④

또 이 근래에 오면서 온 세상사람이 각자위심하여 천리를 순종  
치 아니하고 천명을 돌아보지 아니하므로 마음이 항상 두려워 어  
찌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至於庚申 傳聞西洋之人 以爲天主之意 不取富貴 功取天下 立其  
堂 行其道故 吾亦有其然豈其然之疑 ⑤

경신년에 와서 전해 듣건대 서양사람들은 천주의 뜻이라 하여  
부귀는 취하지 않는다 하면서 천하를 쳐서 빼앗아 그 교당을 세우  
고 그 도를 행한다고 하므로 내 또한 그것이 그럴까 어찌 그것이  
그럴까 하는 의심이 있었더니,

不意四月 心寒身戰 疾不得執症 言不得難狀之際 有何仙語 忽入  
耳中 驚起探問則 曰勿懼勿恐 世人謂我上帝 汝不知上帝耶 問其所  
然 曰余亦無功故 生汝世間 教人此法 勿疑勿疑 曰然則 西道以教人  
乎 曰不然 吾有靈符 其名仙藥 其形太極 又形弓弓 受我此符 濟人疾  
病 受我呪文 教人爲我則 汝亦長生 布德天下矣 ⑥

뜻밖에도 사월에 마음이 선통해지고 몸이 떨려서 무슨 병인지  
 집중할 수도 없고 말로 형상하기도 어려울 즈음에 어떤 신선의 말  
 씬이 있어 문득 귀에 들리므로 놀라 캐어물은즉 대답하시기를 「두  
 려워하지 말고 두려워 하지 말라. 세상 사람이 나를 상제라 이르게  
 늘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그 까닭을 물으니 대답하시기를 「내 또한 공이 없으므로 너를 세  
 상에 내어 사람에게 이 법을 가르치게 하니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  
 지 말라.」문기를 「그러면 서도로써 사람을 가르치리이까.」 대답하  
 시기를 「그렇지 아니하다. 나에게 영부 있으니 그 이름은 선약이요  
 그 형상은 태극이요 또 형상은 궁궁이니, 나의 영부를 받아 사람을  
 질병에서 건지고 나의 주문을 받아 사람을 가르쳐서 나를 위하게  
 하면 너도 또한 장생하여 덕을 천하에 퍼리라.」

吾亦感其言 受其符 書以吞服則 潤身差病 方乃知仙藥矣 到此用  
 病則 或有差不差故 莫知其端 察其所然則 誠之又誠 至爲天主者 每  
 每有中 不順道德者 一一無驗 此非受人之誠敬耶 ⑦

나도 또한 그 말씀에 느끼어 그 영부를 받아 써서 물에 타서 마셔  
 본 즉 몸이 윤택해지고 병이 낫는지라, 바야흐로 선약인줄 알았더  
 니 이것을 병에 써봄에 이르른즉 혹 낫기도 하고 낫지 않기도 하므  
 로 그 까닭을 알 수 없어 그러한 이유를 살펴본 즉 정성드리고 또  
 정성을 드리어 지극히 한울님을 위하는 사람은 매번 들어맞고 도

덕을 순종치 않는 사람은 하나도 효험이 없었으니 이것은 받는 사람의 정성과 공경이 아니겠는가.

是故 我國惡疾滿世 民無四時之安 是亦傷害之數也 西洋戰勝功取 無事不成而 天下盡滅 亦不無虜亡之歎 輔國安民 計將安出 ⑧

이러므로 우리 나라는 악질이 세상에 가득 차서 백성들이 언제나 편안할 때가 없으니 이 또한 상해의 운수요, 서양은 싸우면 이기고 치면 빼앗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으니 천하가 다 멸망하면 또한 순망지탄이 없지 않을 것이라. 보국 안민의 계책이 장차 어디서 나올 것인가.

惜哉 於今世人 未知時運 聞我斯言則 入則心非 出則巷議 不順道德 甚可畏也 賢者聞之 其或不然而 吾將慨歎 世則無奈 忘略記出 諭以示之 敬受此書 欽哉訓辭 ⑨

애석하도다. 지금 세상사람은 시운을 알지 못하여 나의 이 말을 들으면 들어가서는 마음으로 그르게 여기고 나와서는 모여서 수군거리며 도덕을 순종치 아니하니 심히 두려운 일이다. 어진 사람도 이를 듣고 그것이 혹 그렇지 않다고 여기니 내 못내 개탄하거니와 세상은 어찌 할 수 없는지라, 간략하나마 적어내어 가르쳐 보이니 공경히 이 글을 받아 삼가 교훈의 말씀으로 삼을지이다.

# 수운 최제우(水雲 崔濟愚) 대신사 약력

- 포덕전 36년(1824) 10월 28일 경주 월성군 현곡면 가정리에서  
부친 경주 최씨 옥과 모친 한씨 사이에서 탄생하시다.  
처음 이름은 제선(濟宣) 자는 도언(道彦) 이시다.
- 포덕전 29년(1831) 모친 환원하시다.
- 포덕전 20년(1840) 부친 근암공 환원하시다.
- 포덕전 18년(1842) 울산의 밀양 박씨와 혼인하시다.
- 포덕전 17년(1843) 집이 불타 용담정으로 이사하시다.
- 포덕전 16년(1844) 주유천하에 나서시다.
- 포덕전 6년(1854) 주유천하를 마치고 울산 호암동(일명 여시바윗골)에  
초가 삼간을 짓고 구도의 수행에 들어가시다.
- 포덕전 5년(1855) 3월에 호암동에서 을묘천서를 받으시다.
- 포덕전 4년(1856) 양산 천성산 내원암에서 수행하시다가  
숙부의 환원을 직관하시고 47일만에 하산하시다.
- 포덕전 3년(1857) 천성산 적멸굴에서 다시 49일간의 기도를 마치시다.
- 포덕전 1년(1859) 10월에 경영하던 철점이 파산되어  
집과 땅을 채권자에게 넘기고 용담으로 돌아오시다.
- 포덕 1년(1860) 2월에 입춘시를 지으시며 구도의 결의를 다지시다.  
이름 제선을 제우(濟愚)로, 자 도언을 성묵(性默)으로,

호를 수운(水雲)으로 고치시다.

4월 5일 용담에서 한울님으로부터 무극대도를 받으시다.

5월 용담가를 지으시다.

- 포덕 2년(1861) 6월부터 포덕을 시작하자어진 선비들과 민중들이  
구름처럼 모여들다.  
7월에 포덕문, 8월에 안심가를 지으시다.  
11월에 유생들이 서학으로 몰아 관으로부터 탄압이 있자  
제자 최중희를 데리고 남정길에 오르시다.  
12월 호남지방 남원 교룡산성 隱跡庵에 은거하시다.
- 포덕 3년(1862) 1월에 권학과와 논학문을  
6월에 수덕문과 몽중노소문답가를 지으시다.  
7월에 경주부 청송으로 돌아와 박대여의 집에 머무시다.  
9월 많은 제자들이 출입하자 경주영장은 대신사를 체포,  
이 소식을 들은 도인 5-6백명이 모여 영장에게 항의하자  
5일만에 석방하다.  
10월 14일 처신을 신중히 하라는 통문을 띄우시다.  
11월 9일 흥해 매곡동 손봉조의 집으로 옮기시다.  
12월 26일에 연원의 효시가 되는 접주(接主)를  
최초로 임명하시다.
- 포덕 4년(1863) 3월 9일 용담정으로 돌아와 필법을 지으시다.  
4월에 좌잠을 지어 강수에게 주시다.  
6월에 개접(開接)하여 많은 도인들에 가르침을 베푸시다.  
7월 23일 파접(罷接)하시다.

이날 최경상에게 해월(海月)의 도호를 지어주시고  
북도중주인(北道中主人)으로 임명하시다.  
하순에 도덕가를 지으시다.  
8월 초순에 흥비가를 지으시다.  
8월 14일 최해월에게 도통(道統)을 전수하시다.  
11월 불연기연을 지으시다.  
12월 10일 조정에서 파견한 선전관 정운구에게 피체되시다.  
대신사와 이내겸은 서울로 압송되고  
나머지 30명은 경주옥에 하옥되다.  
12월 20일 과천에 당도했다가 철종의 국상(國喪)을  
당하여 경상감영에 환송되시다.

포덕 5년(1864) 1월 6일에 대구 감영에 수감되시어  
20일부터 혹독한 신문(訊問)을 받으시다.  
3월 10일 좌도난정률의 누명을 쓰고  
대구 관덕당에서 참형을 받아 순도하시다(41세).

# 중앙대교당 건립 100주년 기념행사 기획(안)

## - 음악이 있는 중앙대교당 100년 이야기 -

### ■ 사업취지

포덕162년 올해는 중앙대교당 건립 된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중앙대교당은 1918년 4월 5일 중앙총부에서는 천일기념일을 기해 의암성사와 춘암상사를 비롯한 140여명의 교역자들이 참석한 부구총회(部區總會)에서 대교당 건축을 협의하고 건축자금은 교인들의 성금으로 충당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1921년에 중앙대교당이 완공되었다. 중앙대교당 건립 100년을 기해 지난 역사 속에서 교단과 한국사회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고 미래 100년의 중앙대교당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 ■ 사업 일정 및 내용

1. 일 정 : 포덕162년 4월 5일 선포식, 공식행사 8월 14일(예정)
2. 자료집 제작(중앙대교당의 역사 100년과 미래 100년 이야기)
  - 1) 의암성사와 3.1 운동 그리고 중앙대교당
  - 2) 상징으로서 중앙대교당, 대신사출세백년 기념관, 임실·장흥교당 살펴보기
  - 3) 중앙대교당 중심의 역사와 음악, 문화의 공간이야기
  - 4) 중앙대교당 보존과 미래의 공간 확장
3. 문화 공연(오케스트라공연)
4. 기념 전시 : 중앙대교당 100년의 변천사 및 대교당의 미래
5. 기념물 제작 : 중앙대교당, 대신사출세백년 기념관 조형물 제작

※ 교인참여 및 기간 안내\_ 중앙대교당관련 개인 소장 사진 및 소감 모집  
포덕 162년 4월 5일(월)부터 7월 16일(금)까지





## 천도교중앙대교당 건립 100주년

포덕 162(2021)년 4월 5일, 오늘은 중앙대교당을 준공하여 첫 기념식을 봉행한지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중앙총부에서는 올해 중앙대교당 건립 100주년을 기해 그 뜻을 기리는 행사를 준비하오니 우리 교인 모두가 하나가 되어 온 정성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천도교중앙대교당

민족운동, 민족문화의 터전

본 대교당은 의암성사(손병희)께서 동학을 천도교로 선포하시고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지어졌습니다. 1918년 12월 1일 기공식을 행하고 1919년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교인들로부터 받은 건축성금의 대부분은 3·1독립운동 거사자금으로 사용되었고 건축과정에서 일제의 집요한 방해 책동으로 지연되어 1921년 2월 28일에 비로소 입주 봉고식을 봉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1920년대 서울의 3대 건물 중 하나로서 민족정신의 보루이자 민족문화의 산실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민족문화운동의 중심지로서 특히 어린운동이 이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건국을 위한 지식인들의 강연장으로서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자취가 서려 있는 건물입니다. 1978년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 천도교중앙총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57 수운회관 우)03147

[www.chondogyo.or.kr](http://www.chondogyo.or.kr) e-mail [webmaster@chondogyo.or.kr](mailto:webmaster@chondogyo.or.kr)

Tel +82-2-732-3956 Fax +82-2-739-4533